

# "가정과 진료 병행, 쉬운 일이 아니에요."

- 예전..., 한 2년쯤 전인가.

한 과의 개강파티에 낀 적이 있다.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거기에는 군 제대한 선배들도 있고, 신입 여자 후배들도 물론 있었다.

제대한 사람중 한 명 왈, "너희 여자애들이 들어오느라 대학에 못 온 남자애들이 어디에선가 괴로워할 거야. 죄의식을 좀 가져. 너흰 가족부양을 하나, 평생 직장에서 일을 하나. 괜히 과 인원수만 채우다가 나가느거 아냐. 그리고 집에 가려면 지금 가. 나중에 분위기 깨지 말고. 여자들은 초장에 슬며시 없어지는게 예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지난 5월 25일 아이디어가 shihm인 임성호씨가 하이텔의 전국치과대학연합의 토론방에 올려놓은 글이다.

## 여자들은 시집이나 가지 왜 경쟁을만 높이는 거야?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이자 서울시 강남구 청아치과병원장인 김찬숙 원장은 "여자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만 있으면 이제는 여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개원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라며 이제는 여자들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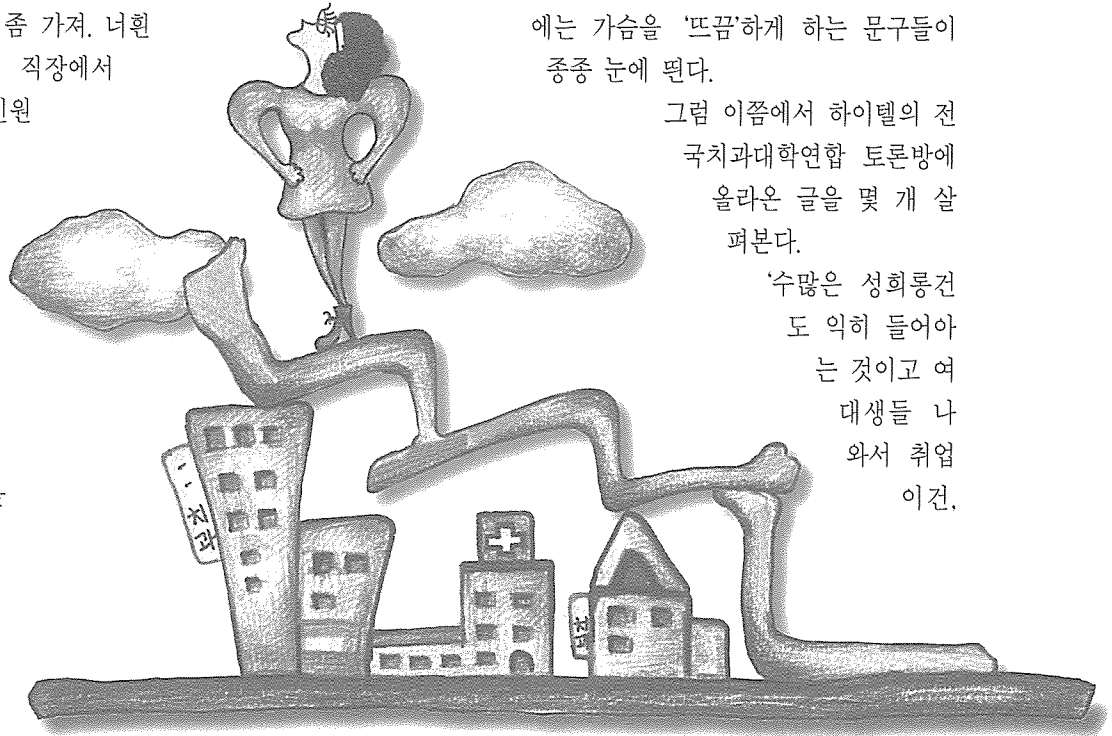
그러나 남성중심인 한국사회에서 게다가 오랫동안

남성의 기득권이 인정된 치과계에서 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 보인다.

지금 하이텔의 전국치과대학연합의 토론방에서는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에 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모여 활발한 토의를 벌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통신상에 올라온 글 중에는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문구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럼 이쯤에서 하이텔의 전국치과대학연합 토론방에 올라온 글을 몇 개 살펴본다.

'수많은 성희롱건도 익히 들어가는 것이고 여대생들 나와서 취업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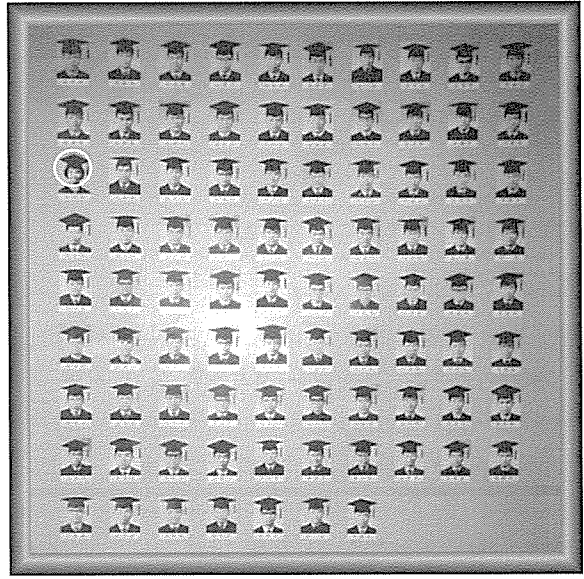
교수 자리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에서 생활하고 처세하고 그 놀이문화를 견디는 것이 꽤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았다. '서울대 여학생들은 죄인이다. 얼굴이 미워서 죄인, 그런 주제에 학점은 잘 받아서 또 죄인, 좋은 데 시집가서 암전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자아실현 어찌고 해서 또 죄인,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면 분위기 깬다고 죄인, 끝까지 남아 있으면 무슨 여자애가 그러냐고 또 죄인...'

아이디가 drsim95인 심수현양은 실제로 조직학 시험 이후에 자신과 같은 학번의 남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



〈1962년 졸업사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층 로비에 있는 졸업생 사진들. 60년대에 비해 98년에 여학생이 많이 증가됐다. 70년 졸업사진에는 여학생이 보이지 않는다. (동그라미는 여학생임.)



〈1966년 졸업사진〉

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여자들은 시집이나 가지 왜 경쟁을만 높이는 거야?'

물론 통신에 올라온 글들이나 앞으로 기자가 서술하는 글들은 단지 치과계에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그 모순이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런 것이 치과계에만 존재하는 유별난 현상이 아님을 전제로 글을 풀어나가기로 하자.

### 군보, 비군보, 모순은 없는가?

현재 한강성심병원 구강외과에서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미자 레지던트. 여자를 거의 뽑지 않는 남성중심의 과라고 알려진 구강외과에서 생활하지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물론 남자와 똑같이 당직도 선다. 그렇다면 홍일점으로서 속칭 3D과 중의 하나로 알려진 구강외과에서 당차게 수련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남자 위주 분위기인 구강외과에서 그녀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미자 레지던트가 말하는 편견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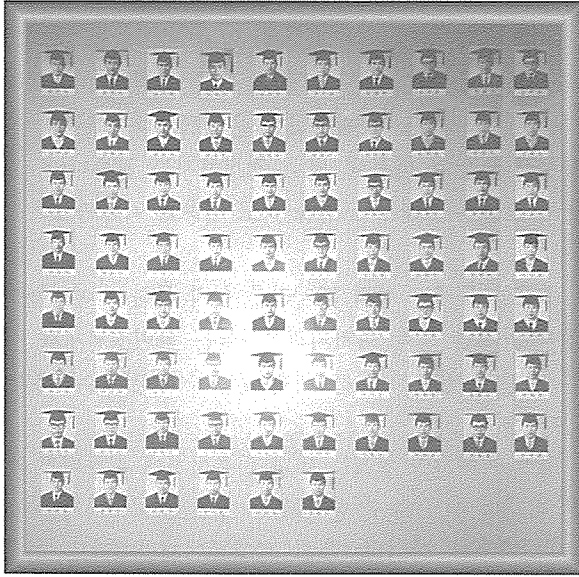
"물론 수련의 생활 중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중 일부가 낙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오하는 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자라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낙오했다고 봐주지 않는 편견도 문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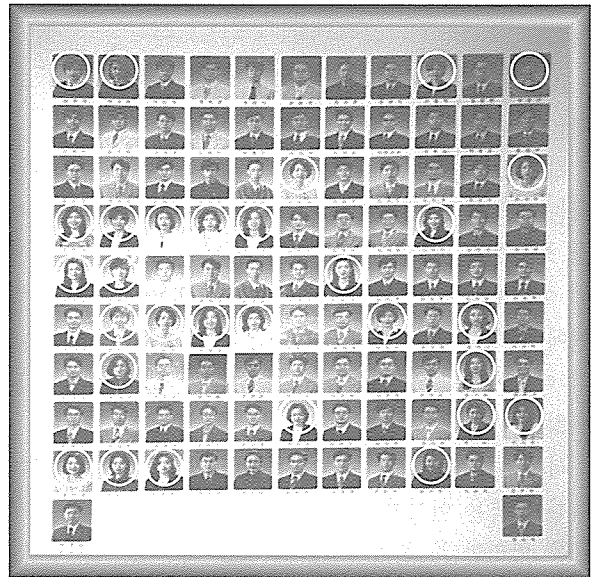
여자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 수련의 생활에서 그다지 힘든 일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어렵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련의가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푸념이다. 이쯤해서 수련의 선발시 적용되는 군보, 비군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련의가 되기 위해서 치과대학의 여학생과 남학생은 군보, 비군보 제도하에서 따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수요가 남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여자에게 기회가 적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돼 있다.

서울치대 이상현 레지던트는 '특히 우리현실, 치대 내에서 생활문제, 수련의 선발시 군보, 비군보, 술과 잡기... 부조리한 면이 부지기수이나 현실에 안주해온 남학생들의 외면 때문에 주위 동료들, 여학생 동료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 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더 일 잘하고(성적보다), 과감한 행동력,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등등. 다른 문제에는 그렇게 사회적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구실로 이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어찌자고 남녀를 구분짓는 문제에는 봉건적인 되어야 하는지...'라며 치대 내에서의 우리 현실을 지적한다.



〈1970년 졸업사진〉



〈1998년 졸업사진〉

전남치대 방몽숙 학장의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동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그당시 여자 수련의를 뽑지 않았다'는 말은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여학생 수련의 수요가 증가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아직도 여학생들은 불만에 싸여 있고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목소리를 모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 치과의사로서 자리 찾기, "바쁘다 바빠!"

한국에서 여자로서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페미니즘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직을 가진 여자로서, 특히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들의 이야기에는 다소 한(?)이 섞인 푸념도 들린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여자치과의사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여자치과의사들은 단연 가정과 육아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곽정민 학교보건원 실장은 "가사의 문제는 남편과 같이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아의 문제에 있어 여자들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졸업할 당시의 이상과 현실적 생활에서 많은 부분 포기하게 되죠."

70년대에 치대를 다녔던 서울시 강남구 이성자 원장

은 여자라고 기피하는 환자가 있었던 당시 간판에 이름을 내걸지 않고 성만 내거는 여자치과의사가 많았지만 처음부터 이름 세 자를 내걸고 개원했다고 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김진 교수는 치대에 여자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조차 없는 구강병리학이란 과목을 의과 학생과 함께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치과냐, 결혼이나'의 선택에서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남자위주의 과에서 남자위주의 놀이문화는 또한 여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성자 원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인 학회모임이 자연스럽게 사적인 모임으로 연장되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합되면서 친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남자와 같이 행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것은 단지 남편이 이해심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소아치과를 공부한 김은숙 원장은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강의실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한다. 또한 남자가 출산휴가를 받고 아기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국의 구조적인 후진성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사항이 요원한 현실일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여성들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70년대 학교를 다니던 여자치과의사들은 지금의 후배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지난 5월 30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이성자 원장은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좀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연세치대 30주년에 후배와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희와는 다른 정서를 느꼈죠.” 라고 말한다.

서울시 강남구 김은숙 원장도 90년대 학번 후배에 대한 느낌은 이성자 원장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 후배들은 머리만(?) 좋아서 치과의사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치과진료도 하나의 서비스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진정으로 환자를 이해하기 힘든데 말이죠.”

이에 대해 70년대와 지금을 잇는 중간다리 세대인 백정화 서울치대 교수는 “물론 지금 세대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적응해 가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여자치과의사들은 타여성단체와 같은 자신의 입지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여성의 제자리 찾기는 비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며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우선 치과계에서만이라도 힘을 모으자. 그리고 후배 여자치과의사를 위한 길잡이에 노력을 기울이자. 〈안정미 기자〉

### Interview

## 치과계 물밑작업,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장계순/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 집행부의 유일한 여성 장계순 이사.

치협의 이사로서 주로 하는 일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물밑작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와의 협의 등 협회의 이름을 내걸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로 처리한다.

장이사는 치협 집행부의 유일한 여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없다. 남자들만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단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이다.

장이사와 몇시간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거침이 없는 그녀의 성격이 대번 나온다. 주변 사람은 그런 그녀를 치과계 여걸 중의 한 명이라고 평한다.

지난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여성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서도 맹활약한 바 있다.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일할 때의 에피소드 한 가지.

치과대학생 한 명이 찾아오더니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이것저것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더란다. 활달한 성격의 장이사는 금새 그 여학생과 친해져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요 골자는 본인도 장이사처럼 진료외의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그래서 장이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소 개인적이긴 하지만 장이사의 결혼 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서울치대 교수와 장이사가 만나 처음 신접살림을 꾸릴 때는 어땠을까? 교수와 만난지 한달만에 얼떨결에(?) 결혼을 한 장이사는 신혼초기에 결혼사진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고.

장이사는 사실 대학시절 연극에 몰두했었다. 그래서 학교 수준의 연극반이 아니라 전국 대학연합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 브라운관을 통해 볼 수 있는 심양홍이나 여운계도 같이 활동을 했었다고. 이렇게 연극을 좋아하는 그녀가 결혼 후 작년 처음으로 연극 구경을 갔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내조도 또한 정성이다.

현재는 여성신문에 4회에 걸쳐 치과관련 연재물을 싣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자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여자들은 수련의 생활을 거치는 동안 결혼이나 출산문제에 대해 미루고 열심히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안정미 기자>

### Interview

치과계의 유일한 여자 학장인 전남치대 방몽숙 학장. 학장을 맡게 된 후 평상시 하던 일 외에 행정적인 일을 맡게 돼서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치과대학에서 행정에 대해 연구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가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은 경영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계획이에요. 치과계에서



방몽숙/전남대학교 치과대학장

막 대하는 것을 볼 때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방학장은 지금 두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전남치대의 학장으로서 지난 번의 전남치대사태의 진통을 극복하고 마무리를 잘 해서 전남치대가 다시 거듭나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바

## "여자이기 때문에 두 배 노력해야 합니다"

도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퇴보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학장은 74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경희치대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에 대한 수련의 T/O가 전혀 없었기에 광주기독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 화가 복이 된 것일까. 지금의 학장에까지 오르게 돼 자신의 경우에는 일이 더 잘 풀린 경우라고.

"남자와 여자가 50%, 50%씩 동등하게 일을 하면 아직 이 사회에서는 여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는 더 잘해야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자에게 제약된 것이 많은 것과 일부 물지각한 환자가 여자치과의사라고 해서

란다.

방학장은 남자치과의사들이 여자치과의사회의 조직과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종종 든다. 출발점에서부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어떤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문직과 가정을 병행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자치과의사에게 희생을 바라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며 훌륭한 선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안정미 기자>

## Interview

"여자교수로서가 아니라  
병리학교수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김진/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수

84년 3월 전임강사로 임명받고 97년 3월 정교수로 부임하기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김진 교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한 사람 중의 한명이다.

"여자로서 인터뷰하는 것 별로 달갑지 않아요. 구강병리학 교수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최고의 직업임에도 세미나나 학회에서 같은 동료로서가 아니라 여자가 한 명 있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김교수는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교수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달갑지 않다고. 김교수는 공식석상인 전문적인 자리에서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구강병리학의 교수로 대우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교수는 수련생활을 하던 때 의대의 병리학 교실에서 4년동안 수련을 받았다. 당시 연세치대에는 없던 구강병리학을 처음 시작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세대학교에서 구강병리학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라고 하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교수는 과거를 돌아보건데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자신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일구어온 일기기에 만약 자기처럼 고생을 한다면 후배들에게 교수가 되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 결혼이나 치과전문인이 되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다소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여자치과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여자치과의사나 여의사의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자들 스스로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에 가려 남녀불평등에 대한 관념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양치의학이 들어온지 어언 84년. 김교수는 남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치의학계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김교수의 앞으로의 꿈은 세계 치의학계가 인정할 만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안정미 기자>